



새롭게 변화하는 학교 소식 이모저모

2021. 11. 30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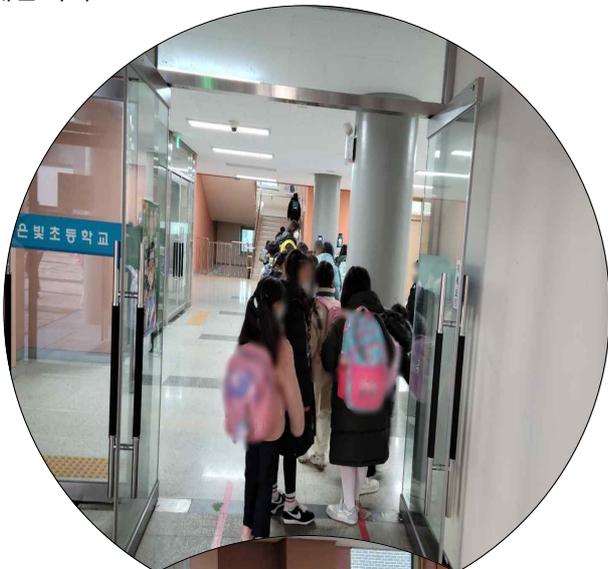
펴낸곳 : 은빛초등학교

★ 우리 모두 학교에서 만나요.

-전학년 전면등교 실시-

2021년 11월 22일 월요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의 추진에 따라 전면등교가 실시되었습니다.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학생이 학교로 등교하여 모든 학생들이 하루종일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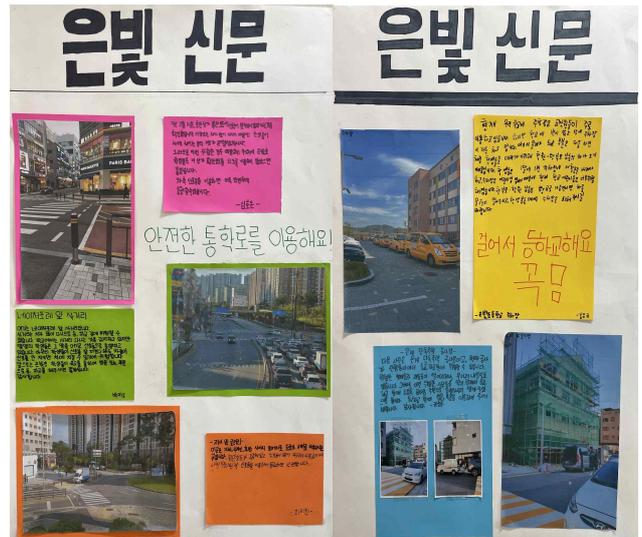
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자주 손씻기,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 생활지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.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은빛초등학교를 기대해봅니다.



★ 안전한 통학로로 걸어 다녀요!

-은빛초 안전신문 만들기-

지난 10월, 학교안전매핑동아리에서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우리 학교 안전신문을 만들었습니다. 학생들이 직접 학교 주변을 탐색하며 위험요인을 찾고, 위험한 장소를 선정하여 각 장소의 위험성과 대처방안을 담은 기사를 실었습니다. 학원 및 학부모님 차량이 많이 드나드는 학교 주차장, 단독주택 공사장,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, 큰 사거리 등 우리 주변에 많은 위험요인이 있었습니다. 안전신문을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로를 이용해 걸어 다니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실천하길 바랍니다. 교통안전에 유의하며 항상 안전하게 다닐 수 있길 희망합니다.



★ 아! 세! 우!
-4학년 프로젝트학습-



아! 세! 우! 프로젝트!!

아!름다운~
세!상을 만들어가는~
우!리들의 작은 실천~

2021년 11월 2일부터 11월 25일까지 4학년 1반과 9반에서 『아!세!우!』 프로젝트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. 여러교과를 주제통합하여 8차시로 운영되었던 이 프로젝트학습은 4학년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열정으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. 구체적인 활동 프로그램은 먼저 프로젝트에 대하여 의견나누기, 노래배우기, 팝아트 문구 디자인하기, 안무만들기, 캠페인 하기, 활동 후 느낀점 공유하기입니다. 이 프로젝트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시간이었고 무엇보다도 한자한자 만든 문구로 교문에서 펼쳐진 캠페인 활동은 다른 학년에게도 큰 배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.



★ 내 손으로 만드는 전통 떡

-떡 동아리 '우리 것이 좋은 것이어' -



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요리 활동에 꿈을 가진 6학년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차원에서 학교장이 2019년 개교때부터 3년동안 매월 1회 실시하는 활동내용과 6학년 떡 동아리부 학생들의 활동소감입니다.

시기	활동내용
6월	콩설기
7월	참쌀파이 (원격수업으로 미실시)
9월	보리떡
10월	레몬모치케익
11월	약밥
12월	바람떡

정○빈	그냥 먹어보기만 하던 떡을 직접 만들어보니 재밌고 신기했다. 떡 만드는 과정이랑 여러 가지 도구를 보니 집에서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다. 떡 동아리에서 한 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.
황○연	이런 걸 만들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재밌었다. 매번 만든 것들이 너무 예쁘고 맛있어서 더 기억에 남는다.
엄○원	재미있고 부모님께서 맛있다고 하셔서 뿌듯했다. 집에서도 만들어 보고 싶다.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예쁘고 친절하시다♥
박○주	평소에는 자주 볼 수 없는 교장 선생님을 만나볼 수 있어서 좋았다.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신청하고 싶다.
조○은	어떤 떡들이 있는지 새로 알 수 있었고, 친구들과도 좋은 경험을 해서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다.
심○은	비록 한 번 밖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재미있는 경험이 되었다.
천○인	원래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. 떡동아리에서 여태껏 만들어보지 못한 떡들을 만드니 너무 행복했다.
남○연	만들어보지 못했던 떡을 만들고, 먹어서 뿌듯하고 신기했다. 다음에는 내가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. 나의 재능을 알게 되었다.
박○제	특히 레몬모치케익을 만들 때 가장 기분이 좋았다. 떡동아리를 계속 하면 좋겠다.

이렇게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만든 떡을 가족 또는 주위 사람에게 선물하며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. "나도 떡을 좋아한다!" 혹은 "전통 떡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고 싶다!" 하는 친구들은 6학년이 되었을 때 떡 동아리에 가입해보는 건 어떨까요?